7월에 이어 8월에 들어서도 33도 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남원시에서는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

독거노인 특별관리 · 주민센터 등 332개소 무더위 쉼터 지정

7월에 이어 8월에 들어서도 33도 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남원시에서는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및 폭염일수 빈도 증가로 시민생활 전반에 폭염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사회 · 경제적 영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폭염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개반 7명의 T/F팀을 구성하고 9월30일까지 폭염특보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통보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폭염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의 특별관리 및 노인, 야외근로자 등도 수시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332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운영 중이다.

폭염취약계층의 특별보호 관리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및 간호사, 리 · 통장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지정한바 있다.

지정된 재난도우미들이 폭염취약계층을 밀착관리 하도록 하여 폭염특보 발효시 가정방문과 안부전화 등을 통해 폭염발생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건강체크 등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폭염특보 발효시 시내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남원 소방서와 남신레미콘의 협조를 받아 주요 대로변에 하루 두 번씩 살수를 하고 있으며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얼음비치와 얼음물을 준비하여 더위에 치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장날에는 남원시 안전재난과와 지역자율방재단, 남원시 안전실천시민연합회원등 약 60여명이 민관합동으로 공설시장에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얼음물을 제공하며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였다.

남원시는 또한 물놀이 안전 대책으로 먼저 7. 1부터 8.31까지 2개월간 관내 물놀이위험구역 10개소에 물놀이 안전요원 20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산내 내령계곡 등 5개소를 비롯하여 금지면 1개소, 노암동 2개소, 도통동 1개소, 산동면 1개소 등 수심이 깊고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2인 1개조씩 총 10개조를 편성 운영 중이다.

남원시에서는 이밖에도 각 부서별로 폭염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폭염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축산 관련 부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환풍기 및 단열재 부착, 차양막 설치 등 축사 시설환경개선과 모기 퇴치기구 설치등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축산농가에 홍보지도 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오수면 둔데기 마을 백중놀이 행사

12일 개최… 전통놀이 · 먹거리 · 문화공연 등

오수면 둔데기마을(위원장 이운재)이 전통세시풍속인 백중날(음력 7월15일)을 맞아, 작년에 이어 2회째 백중놀이 행사를 12일에 개최한다.

둔데기 마을은 오수면 내 6개 법정리로 구성된 둔덕권역의 브랜드명을 말하며, 이날 행사는 지은지 500년 된 이웅재 고가(전라북도 민속자료 12호)에서 지역 주민들과 출향인들 200여명이 모여 백중(百中)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전통놀이와 음식을 즐기며 화합을 다지게 된다.

특히, 행사날 오전에는 마을 기(旗) 고사 및 용기(龍旗)놀이를 통해 이 마을에 오래 전부터 전해내려온 '마을 용기'가 모처럼 대중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전통주, 보리단술, 수수부꾸미 등 부녀회에서 준비한 전통 음식과 주민합창, 할머니 다듬이공연, 색소폰공연, 가곡 독창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둔데기마을 이운재 대표는 "이번 행사를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주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했고", "누구나 이 곳에 오시면 옛날 백중날 동네잔치의 정(情)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년 고택(古宅)마당에 울려퍼지는 이 마을 출신 성악가의 가곡소리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임실군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이번 행사가 기존에 경제?소득사업에만 편중된 사업지원이 전통문화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 측면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학생과 하계과학캠프

초등학교 4학년~6학년 대상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들과 함께 하계과학캠프를 시작했다.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고창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하계과학캠프는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지난 2009년 고창군과 서울대학교가 체결한 '관학협력 및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여덟 번째로 마련됐으며 이야기가 있는 과학 실험을 주제로 어린이 과학 수사대, 조상들의 지혜 등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 해소 및 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캠프기간동안 서울대 재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 이론을 교구와 교재를 이용하여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과학봉사단은 고창여고를 찾아 1~2학년을 대상으로 멘토 · 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후배들에게 향후 진로와 학습방법, 대학생활 등에 관한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여고생들의 학습욕구를 한층 키워주는 기회가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생활폐기물 가스화연구사업 실패 대책을"

이환주 남원시장

이환주 남원시장은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후속조치와 시비 투자금 회수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만나 남원시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총사업비 137억 원이 소요되고 그중에 국비 64억 원 시비 66억 원, 현물 7억 원이 투자되었다.

당초에 시는 대산매립장 사용기한(2017년 7월 종료예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매립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인 포스코플랜텍 간의 기술적 문제로 2015년 12월 25일 시운전 및 공사를 중단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최종평가를 실패로 통보 받았다.

이에 이 시장은 이정섭 환경부차관을 만나"우리시는 그 동안 연구사업에 의한 대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전망하고 있었으나 연구사업 실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단계적 처리방안으로 4단 제방설치, 매립장 확장, 소각시설 설치 등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국비 192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생활폐기물 가스화 연구사업에 투자된 시비 투자금이 환수되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단계적 사업을 준비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을지연습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사전점검 준비사항 · 조치사항 재점검 · 보완사항 대책 등 살펴보는 시간 가져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실시되는 2016 을지연습을 대비하는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별 전시대비 계획에 대한 사전점검과 준비사항, 사태별 주요 조치사항을 재점검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과 대책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49회를 맞는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따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에 국가위기관리 및 국지 도발 위기대응훈련과 전시 전환절차 연습, 각종 상황조치훈련으로 이뤄진다.

또 전년도 연습결과 등을 반영해 국가 비상사태 시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실전적으로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22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다중이용시설 테러 상황을 대비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실제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 등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을지연습 훈련을 철저히 준비해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광한루원 춘향 · 도령 PHOTO ZONE '각광'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한루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3월 첫선을 보인 '춘향 · 도령' PHOTO ZONE'이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다.

'춘향 · 도령 PHOTO ZONE'은 지고지순한 사랑이야기의 꽃청춘인 춘향 · 도령 조형물과 사랑의 도시 남원을 상징하는 하트 조형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주위엔 향토 초화류를 심어 명승지에 어울리는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정원을 만들어 놓아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입소문에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짙은 향기를 풍기며 아름답게 꽃피어 있는 배롱나무와 완월정 앞 뜰의 푸른 잔디가 배경이 되어주는 포토존은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도 사진을 촬영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어 '춘향 · 도령 PHOTO ZONE'은 포토존의 최고봉이라는 소문을 실감케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선운사 지중화 사업 본격 착수

일주문~시설사용료 매표소 구간

천년고찰 선운사가 있고 호남의 내금강으로 불리며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선운산도립공원의 지중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선운산도립공원 내 자연경관을 해치는 전신 · 통신주를 제거하고 선로 등을 지하로 매설하기 위한 지중화 사업(2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전했다.

군은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선운사 일주문~도솔암(약5km)구간 지중화 사업(1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선운사 일주문~시설사용료 매표소(1.15km)구간 지중화 사업(2차)을 통해 선운산도립공원 전 구간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운산도립공원 지중화사업으로 선운산의 옛 모습을 회복하고, 공원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선운산도립공원 지중화 사업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핵심의 청정이미지 제고 및 생태관광 지역으로서 위상이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탐방객들이 보다 쾌적한 여건 속에서 늘 아름답고 청정한 선운산의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로컬뉴스

고창군, 1일 명예 민원실장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1일 명예 민원실장' 운영으로 명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9일 신뢰받고 친숙한 민원행정을 위해 고창군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손동환씨를 '1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위촉했다.

손동환 명예민원실장은 "오랜 공직생활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민원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또한 후배공무원과 다시 한 번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더위땡 사고땡' 치안활동

폭염속 주민들 위한 얼음 생수로 더위도 이기고 사고도 예방하고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얼린 생수를 제공, 교통사고예방 홍보 및 열사병 등 주민의 건강도 살피는 이색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위땡 사고땡' 치안활동은 순찰차에 얼린 생수를 비치하고 폭염 속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교통사고의 고위험군인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이륜차(사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모, 농기계, 전동휠체어 부착 축광반사지, 부채 등을 배포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지역맞춤형 특수시책이다.

최규운 순창경찰서장은 "다양한 감성치안 활동을 적극 추진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관촌면, 모정좌담회 개최

임실 관촌면은 오는 11일까지 각 마을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모정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민선 6기 하반기에 추진되는 군정시책 및 제도를 홍보하고 10대 핵심사업을 비롯해 군민의 날 체육대회,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내년부터 생활쓰레기가 전주시 광역소각자원화센터로 반입이 되는 만큼 분리수거 요령을 비롯해 맞춤형복지제도, 영농, 폭염 행동요령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진행해 행정 이해도를 높였다.

면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강천산 지킴이 '구슬땀'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팔덕면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강천산에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천산은 전북도 최초의 군립공원으로 주말은 만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주요 관광지로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주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팔덕자율방범대가 매일 5명씩 교대로 교통집중시간대에 교통정리 지원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팔덕자율방범대는 평일에는 야간 순찰근무도 병행하여 안전귀가 도우미로서 주민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고 있다.

최규운 순창서장은 "한정된 경찰 인력에 자율방범대는 치안활동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경찰과 합동으로 관광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차량털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